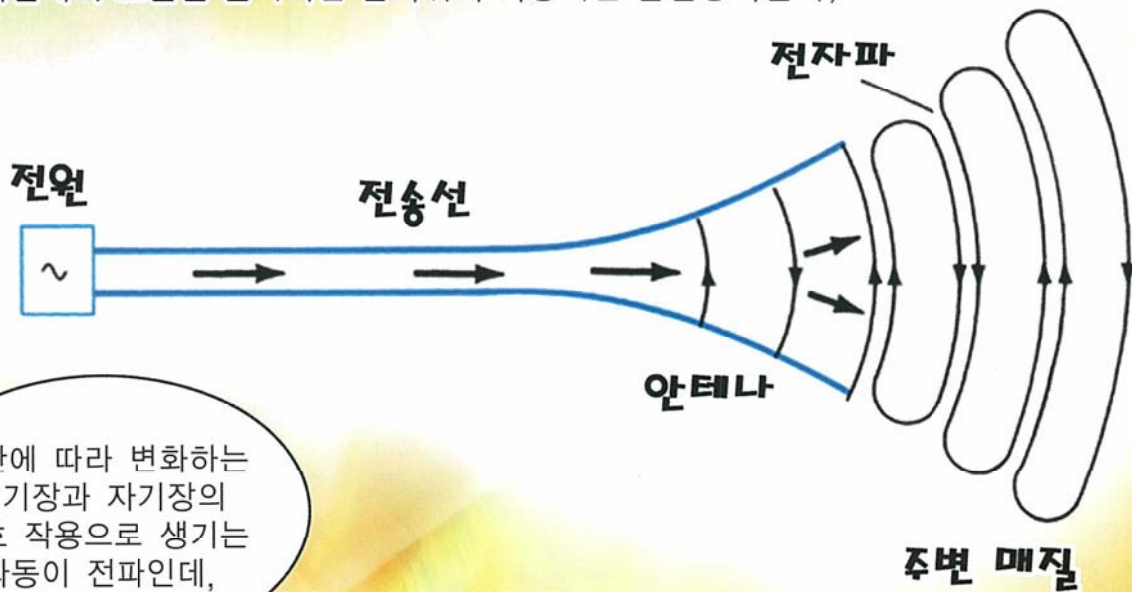




〈안테나의 전파방식〉

안테나는 전송선이나 도판관의 전자파를 주변 매질로 보내거나
주변 매질에서 도달한 전자파를 받기 위해 사용하는 변환장치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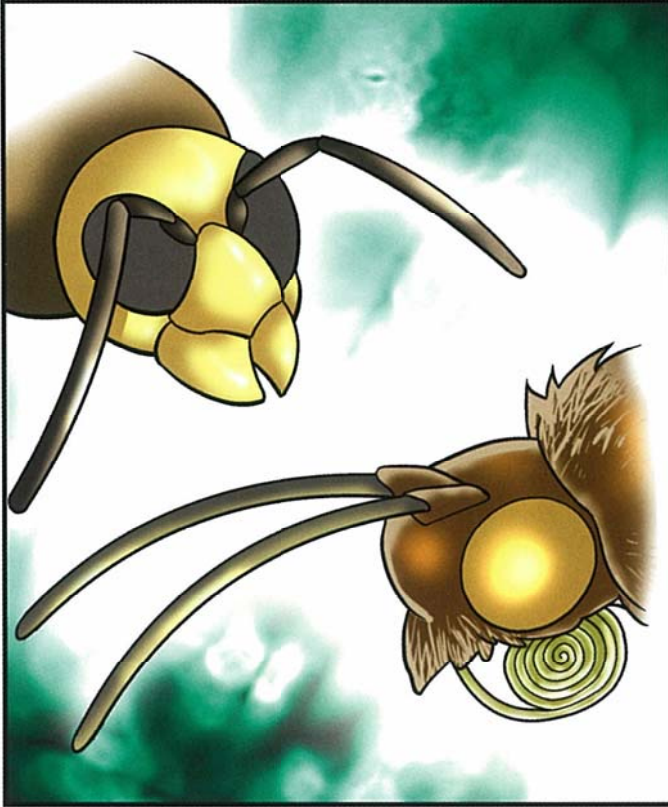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상호 작용으로 생기는
파동이 전파인데,

안테나에서도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전류에 의해
전기장과 자기장이 발생하여
전자파가 생성되고, 반대로
전자파가 안테나에 도달하면
전류가 생성되므로,
전자파를 내보내고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원래 안테나(ANTEMNNA)란 영어는 1900년 이전에는 '곤충의 더듬이, 활대, 촉수'라는 의미가 강했는데



1909년 마르코니가 대학 강연에서 안테나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제는 '전파를 보내거나 받기 위해 공중에 세우는 장치'라는 뜻으로 변한 것이예요



특히 휴대전화의 핵심기술은 뭐니 뭐니 해도 안테나인데



예전엔 밖으로 나와 있었지만 요즘엔 안에 내장되어 나오고 있어, '인테나' (intenna)란 말도 생겨났지요.



요즘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일부
스마트폰 기종에서 안테나 설계가 잘못돼

이용자들이 와글와글 불만을 제기하는 것만
봐도 안테나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야..
먹통이잖아

안테나게이트 (AntennaGate)

그리고 보면
안테나가 엄청
중요한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전기적
특성이나 형태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는데











